

2) 이 문제가 교회 역사에서 일단락된 것은 기원후 325년 6월에 열린 니케아 공회였습니다. 당시 두 대표적인 신학자가 대립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250~336)입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종속론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된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는 하나 실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완전한 신이 아니라 일종의 반신(半神, half-god)입니다. 폴 틸리히는 아리우스의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고대 세계의 영웅 숭배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사』 136쪽)

3) 아리우스 사상을 격퇴한 신학자는 아리우스와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로 활동한 아타나시우스(296~373)입니다. 그는 로고스이신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보다는 열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지지를 얻어서 니케아 공회에서 반(反)아리우스적인 신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신조의 예수 항목에서 핵심은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질이라는 것(homoousios)입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니케아신조를 고백하는 6월 첫 주일입니다.

4)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관념적이고 현학적이어서 신학자들에게나 관심거리이지 일반 신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와 개념이 실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역학이 일상생활에서 실감 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 원리나 자연 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 먼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고고히 앉아서 세상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의존적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그리고 의존적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진화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사회과학처럼 사물과 세상을 기계적으로 끌어가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의존적으로 생명을 발현하고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깝게, 그리고 깊이 참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던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삼위일체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6월11일

성령강림 후 2주
세계 교회력 「가」해 29주



국화과에 속한 ‘구절초’(九節草)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해야 약효가 가장 좋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올봄 텃밭을 만들려고 작파한 꽃밭과 잔디밭 경계에서 무심하게 피었다.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오래간다. (2023년 6월 8일 오전에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의 일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설 새 없이 일어납니다. 멈춰있는 일상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멈춰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여기서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32장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잃어버리게 될 것들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모든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며,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희망하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대구성서아카데미 소식- 매주 목, 금요일에 두 번 동영상으로 업로드 되던 '외르크 칭크'의 기도문 읽기가 6월 9일로 끝나고 칼 라너의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가 3장 '사랑의 기도' 항목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지난주일(6월 4일) 헌금: 490,000원(주일헌금 250,000원, 통장헌금 14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6, 7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6월 18일	박재진목사	고중홍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
6월 25일	김동호목사	김용성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
7월 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집사 최선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7월 9일	이춘우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시청각실
7월 16일	박재진목사	박수진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

지난 주일(6월 4일) 설교 발췌

제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마 28:16~20)

1) 마태복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1세대 제자들보다 2~3세대가 흐른 뒤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는 별로 생생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부활의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게 상식의 차원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의심하는 사람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4, 5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둘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2천 년 그리스도교 역사에 동참했고,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 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자주 일어나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유혹에 빠진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리고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 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Open Our Eyes

B. C.

Bob Cull

1. 내 눈을 떠서 - 주 보게 하소서 - 주
O - pen our eyes, Lord, - we want to see Je - sus; - To

사 랑 한 다 고 - 말 하 게 하 소 서 -
reach out and touch Him - and say that we love Him. -

내 귀 를 열 어 - 날 사 랑 한 다 는 -
O - pen our ears, Lord, - and help us to lis - ten. -

주 님 의 음 성 - 나 듣 게 하 소 서 -
O - pen our eyes, Lord, - we want to see Je - sus. -

고전 2:9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강림후' 둘째 주일의 성서일과로 주어진 말씀이 읽히고 해석되어 선포될 때 사람의 생각은 감춰주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만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창세기 12:1~9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33:1~12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의인들아 우리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라 주님찬양 하는일은 정직한자 도리이니
-주님타며 감사하고 비파뜰어 노래하라 새노래로 주님찬양 가락맞춰 노래하라
여호와와 모든말씀 정의롭고 진실하며 그의공의 그의정의 인자하심 총만하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공간 만드시고 주님께서 입김으로 해와별들 지으셨네
주님께서 바닷물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바닷물을 깊은땅속 곳간안에 두셨다네
-온세상이 주님앞에 떨림으로 찬양하라 온세상의 거민들아 우리주님 경외하라
주님말씀 한마디에 모든것이 생겨나고 주님명령 한마디에 제자리를 잡았다네
-주님께서 나라들의 온갖계획 꺾으시고 주님께서 민족들의 악한생각 부수시네
주님계획 영원하리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품으신뜻 끊어지지 않는다네
-복있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나라 복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뿔뿔히백성

둘째말씀 로마서 4:13~25 ... 이유선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9:9~13, 18~26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 ... 이춘우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함께